

“종무행정과 종단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

사감원, 총기 54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 실시



통리원에서 열린 총기 54년 정기 사무 지도 감사에 앞서 참석자들이 불공정진 중이다.

총기 54년 정기 사무 지도 감사가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역삼동 총본산 통리원에서 진행됐다. 사감원장 범일 정사를 비롯해 사감원 부원장 묘홍 전수, 위원 지현 전수, 서강 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피감 자격

으로 통리원장 목경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교무들이 배석했다.

개시불공에서 범일 정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제21대 통리원이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났고, 이제 3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청

사진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금번 감사가 심도 있는 점검과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집행부 살림살이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또 범일 정사는 “집행부는 바뀌어도 통리원의 사업이 연속성을 갖는 데는 종무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종무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패기 넘치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통리원장 목경 정사는 “사감원장을 위시한 위원들의 고견과 조언을 귀담아 새겨 종무행정과 종단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감사위원들은 통리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총기 53년(2024년)도 예산 집행 등 회계 처리 전반과 주요 업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시행했다.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 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 구매 계약, 예산 운영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준비된 자료와 교무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들의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이후 열리는 중앙총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 이어 제21대 통리원은 오는 4월 8일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종무행정의 폐달을 밝아 나갈 예정이다. 4월 15일부터 17일 사이 제104회 춘계 강공회를 비롯한 제155회 승단 총회 등을 기획 중이다.

아울러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하여 연등 및 기념행사, 봉축 법요식에 집중하며, 5월 29일에는 한국민교학회가 주체하는 춘계 학술대회를 역삼동 본산 총지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

2월 19일부터, 4월 8일 회향



자료사진=스승 불공 모습

총기 54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이 전국 각 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2월 19일 입재했다.

종령 지성 예하는 입재에 앞서 교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하는 49일 동안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과 법문이 다소 있겠지만, 그것은 모두 내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이며, 나의 그릇을 키우는 법문이요, 마음자리를 더욱 넓히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며 “종단 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염주와 진언을 놓지 않고 불공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비로자나 부

처님 전에 서원한다.”고 격려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자녀 잘되기 불공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별기도 중의 하나로 제정하셨다. 한해에 상·하반기 각각 49일 간 봉행되며, 불공은 오는 4월 8일 회향한다.

박재원 기자

서울경인, 부산경남교구장 선임

대구경북교구도 18일 선임 예정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덕광 정사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범일 정사

서울경인교구 교구장에 덕광 정사(밀인사 주교), 부산경남교구 교구장에 범일 정사(정각사 주교)가 각각 선임됐다.

서울경인교구와 부산경남교구는 지난달 13일 각각 교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양 교구 모두 교구 총무 선임은 다음 회의로 순연했다. 교구 총무는 교구장이 지명한다.

한편,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범상 정사는 이달 18일 교구회의를 열고 새 교구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알림

성도합시다. 총지신문을 당호부터 불교총지중이 본지와 함께 매월 발행하는 잡지 '위드다르마(With Dharma)'의 우편 서비스 정기구독자님께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지신문·위드 다르마 구독문의(02)552-1080

종/조/법/어

하나 심어 천수를 얻고 만물을 얻는다.
악덕도 그러하고 선행도 그러하다.

지면안내

2면 연재-해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① 8면 밀교법장담론-선문염송의 선밀쌍전
6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최종희 10면 남해 정사의 인도성지순례기③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동해인!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3월 4일(화)
10시 30분 대강당

총지중 총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일로 19-39(명륜동) T.051.555.4456

교훈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지도자가
되자

2025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Peaceful World, Compassionate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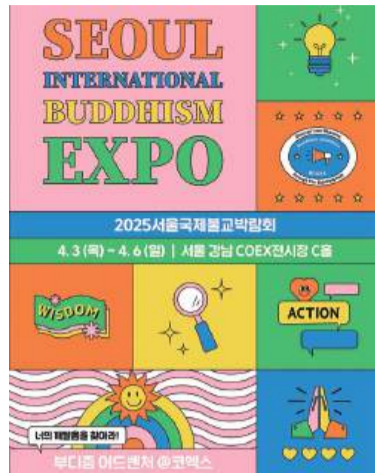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발표됐다. 불기 2569년 봉축 표어는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Peaceful World, Compassionate Mind)'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이하 봉축위)는 2월 28일 올해의 봉축표어를 선정·발표했다.

봉축위는 "세상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를 실천하며,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사회

와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게 하자는 염원을 담아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또 "디자인이 완료되는 대로 봉축 표어를 담은 포스터와 현수막 디자인을 공지하고, 전국의 사찰과 수행단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올해의 표어는 봉축 기본 표어인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공동으로 사용되며, 당해 연도의 사회 상황과 염원 등을 담아 선정하고 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최 4월 3~6일 삼성동 코엑스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붓다아트페어'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C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통한 '나의 깨달음을 찾아라! 부디즘 어드벤처@코엑스'를 주제로 해외 불교국가 및 관계자를 초청해 불교문화 국제 교류전, 선명상, 선무도, 요가, 사찰음식, 미디어아트 등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불교문화 콘텐츠가 펼쳐질 예정이다. 무료관람 사전 등록 23일까지.

해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1)

동참판과 동참불공



사진은 종림 동해중학교 내 동해사. 본존을 정면으로 하고 동참판은 오른쪽에 있다.

“
동참불공 매일 하면
선업공덕 짓게 되고
일체서원 성취된다.
”

총지종 서원당에는 있고, 다른 종단 법당에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법당에는 본존(옴마니반메흠 진언, 불상)과 탕화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특이하게 총지종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참판입니다.

동참판은 불공자가 본인·가족·지인의 이름과 간지를 함께 넣어 명패(갑자생 홍길동)를 만들고, 그 패를 서원사항(영식왕생~영가천도), 제제난(재난방지), 소구여의(소원성취), 영일체인경애(타인과 화합)에 걸어 놓고 불공 올리는 판입니다.

이 동참판은 유일하게 총지종에만 있는데, 이는 타 종단의 법당에 있는 연꽃등 아래 매달아 놓은 서원지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에서 연꽃등은 넓은 공간에 달려 있고, 불공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느낌이 강한 반면, 동참판은 한정된 공간에 배치되어 모든 불공자들의 서원사항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참불공은 이름 그대로 동참(同參),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서원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서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참한 사람들이 일심으로 함께 서원하고 불공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원하여 불공하는 것 보다 여러 대중이 같이 불공을 해주어 속히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종단의 불공법은 불공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불공의 경우, 집공하시는 스님이 축원지에 적힌 주소, 간지, 성명, 서원사항을 읽어 내려가며 불공을 합니다. 이때 스님 한 분이 불공을 진행하며, 대중들이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동참불공할 때 주의사항은 불공자가 직접 서원당에 나와서 불공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성일(일요일)불공이나 월초불공에 나와 진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서원을 위해 불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패만 걸어놓고 서원당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남에게 빛을 지는 것입니다. 또한 명패를 많이 걸기보다 다급하거나 중요한 서원 한 가지만 정하여 불공하는 것이 진전에 더욱 효과적이며 소원도 빠르게 됩니다.

동참불공은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살행으로 남을 위하고 이로움을 주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반야경』에서는 남을 위해 행하는 불공이 깊은 복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사람이 경과 계승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공하면 그 복이 심히 많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참불공은 나와 남을 위하는 불공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가 서원불공을 같이 할 때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 기고

소통(疏通)과 한의학

딸아이는 배우 주지훈의 열렬한 팬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중증의상센터'에서 천재 외과 전문의 역을 맡아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의사 주지훈에 대하여 찬사를 쏟아낸다. 그렇지만 주지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한 의사 아빠의 입장에선 그저 '쓸데없는' 연예인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반대로 딸아이에게는 공부와 인생살이에 관한 아빠의 여러 가지 충고가 또한 불편한 잡음에 불과하기 쉬우리라.

이처럼 같이 한집에 사는 가족 사이에도 세대차, 그리고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감정의 교류와 소통은 다양한 편차를 지니게 된다. 자신이 가치를 두는 일들에만 몰두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줄인다면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소통은 단절되고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는 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람은 가까운 이들,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 가장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음과



몸이 아프게 된다. 단지 소통하지 않고 서로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에서 상처받고 감정의 흐름이 꼬이고 영커서 마음과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국가 사회로 비유하고 몸 내부에서 소통의 부재로 생기는 질환들을 '울(鬱)'이라 칭한다.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고 소통되지 못하면 우선 기운이 울체(鬱滯)되어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들이 발생한다.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답답하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마음의 상처에서 파생된 여러 질환을 모아서 '칠정상(七情傷)'이라 이름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

법들을 마련해 왔다.

우리 몸 내부에서 진액의 흐름이 장애받거나 소통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를 '담음(痰飲)'이라고 부른다. 혈액의 흐름이 혈맥을 이탈하거나 정체되어 소통의 단절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를 '어혈(瘀血)'이라고 부른다. 음식을 잘못 먹고 소화기 내부에서 소통이 잘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체증(滯證)'이라 부르고 그에서 파생되는 여러 질환에 대하여도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구비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학은 우리 몸 내부에서 정신과 기운, 진액과 혈액의 소통(순환이라고도 함)을 보배롭게 여기며 소통의 단절을 중대한 병리적 상태로 규정한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 내부에서의 소통과 사람 사이의 소통, 모두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소통의 단절과 그로 인한 결과 모두를 주요한 병인(病因)으로 파악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의학은 진정한 '소통의 의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내 몸 안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사회와 가족, 친구 사이에서의 대화와 소통, 정서의 교류가 원활하다면 사회는 그만큼 건강해질 것이고 개인도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나무와 숲 한의원 정은철 원장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즈 가로 25cm
- 세로 15cm
- 높이 15cm
- 정가 60,000원
- 문의 02)552-1080
- 불교총지종 통리원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중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개국 30주년 불교TV 이사회 개최

통리원장 록경 정사 이사 선임 추천



BTN불교TV 이사회가 제102회 이사회를 열고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이사에 선임 추천했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또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대폭 확대하여, 총 1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임기 만료되기

나 사임하는 이사 7명 중 구분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황성, 덕명, 성문 스님 4명을 재선임하고, 신규 이사로 10명을 선임 추천했다. 새 선임 추천 이사는 록경 정사를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심산, 금강, 문광, 준한, 법해, 광우, 자현 스님이다. 이

사는 정관 제23조 1항에 의거 3명 이상 23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2024년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제31기 정기 주주총회를 이달 28일 오후 2시 불교TV 법당 무상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날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내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BTN불교TV는 3월 1일 개국 30주년을 맞이했다. 록경 정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불교TV는 영상포교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국내 최초로 안방 부처님의 시대를 열었다.”며 “설립 준비부터 함께 해온 개국 이사 중단으로서 그간의 여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도 늘 같이하겠습니다.”고 전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217차 이사회 개최

2025학년도 역사·영어·기술 교사 임용



이상우



장윤지



황지용

이사회는 2024년도 학교 회계 4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법인과 학교 회계 본 예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결과 이상우(역사), 영어 장윤지(영어), 황지용(기술) 씨를 신입 교사로 임용했다.

학교법인 관음학사(이사장: 록경 정사) 종립 동해중학교 제217차 이사회가 지난 2월 14일 오후 학교 법인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각화 지수 49재 추천불사

교화 발전의 꽃 시각화 지수의 49재가 오는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포항 수인사에서 봉행된다. 각 교구에서는 3월 10일까지 참석 인원을 파악해 수인

사 주교 법사에게 알리면 된다.

시각화 지수는 지난 1월 26일 법랍 50세, 세수 88세로 불생불멸의 연화장세계로 들었다.

동참 문의=통리원 02-552-1080 또는 수인사 054-247-7613

지혜의눈

카오스와 코스모스

극우 파시즘은 유일신 종교에 뿌리 동아시아의 '혼돈'은 긍정적인 의미

장자(莊子)의 <응제왕(應帝王)> 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남쪽 바다의 임금을 숙(樞)이라 하고, 북쪽 바다의 임금을 흘(忽)이라 하고, 그 중앙의 임금을 혼돈(混沌)이라고 하였다. 어느 날 숙과 흘이 혼돈에게 신세를 저서 보답하려고 논의한 끝에 혼돈에게는 사람처럼 7개의 구멍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었다. 7일이 지나자 혼돈은 그만 죽어버렸다.”

칠규(七竅)는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 것으로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비선악(是非善惡)의 판단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장자는 칠규의 구멍이 없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로 '카

오스(chaos)와 '코스모스(cosmos)'가 있습니다. 카오스는 무질서한 상태로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면 코스모스가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혼돈이 긍정적인 의미였다면 서양의 카오스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에서 질서를 부여한 존재를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神)을 설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면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된 질서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여 끊임 없는 충돌을 조장해 온 것을 실제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무명천지시(無名天地之始)이고 유명만물지모(有名萬物之母)”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有名),

즉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라는 것이 사물에 이름을 지음으로써 사물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자의 혼돈 이야기와 맥락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주관에 의해 시비를 분별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과 내용이 통합니다.

여기에서 노자, 장자, 불교에서 시비분별 이전의 혼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질서가 부여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어떤 절대적 기준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하려는 행위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인식 행위를 뒷받침하는 세계관이 노장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이고 불교의 '연기(緣起)'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세계를 나누는 이원론(二元論)은 이항대립(二項對立)적 구도로 재편하여 끊임없이 타자(他者), 즉 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의 역사에서 서구 문명은 타 문명권과 끊임 없는 충돌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온 지 벌써 4분의 1일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

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기후위기에서 비롯한 기상이변과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말 그대로 천재(天災)와 지변(地變)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포함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과 같은 인재(人災)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3일 계엄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빚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선과 악과 같이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나친 억측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내 주장만이 옳다고 내세우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수(保守)는 보호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입장으로, 그 원칙은 현실 사회에서는 법(法)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법, 즉 원칙에 따르는 것이 보수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구(守舊) 내지 극우(極右)는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원칙을 부정합니다. 진보는 변화를 꾀하지만,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극좌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극우와 극좌는 비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극우 파시즘과 극좌 폭력행위 둘 다 서양 문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극우는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유일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도 같은 기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일신교의 신(神)은 사랑의 신이기도 하지만 분노하고 징벌을 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불보살은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중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칭도 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藥師如來), 지옥 중생을 구제하려는 지장보살(地藏菩薩), 고난 속의 중생들을 제도(濟度)하려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등으로 불립니다.

불교의 지옥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받는 과보(果報)로 가는 곳으로 신의 심판에 의해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탄핵 반대 시위가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에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둘 다 교회 목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종교는 자유 세계의 생명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5. 인간은 왜 종교가 필요한가

(1) 사람은 다 종교(宗教)를 믿지만은 체계(體系) 있는 종교를 믿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다 요행(僥倖)과 천우신조(天佑神助)를 바란다. 이것은 종교적 소성(素性)이 누구에게나 잠재(潛在)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위급(危急)한 때를 만나면 종교적(宗教的) 행동(行動)이 드러난다. 이러한 행동(行動)은 체계(體系)가 없으므로 미신(迷信)이고 오래 믿지도 못하게 된다. 예컨대 풍랑(風浪)을 만났을 때나 탄광(炭鑛) 중(中)에 들어가 있을 때 종교자는 절대권능(絕對權能)의 대상(對象)에 구원(救援)을 의뢰(依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는 체계가 있으므로 점점(漸漸) 착해지고 행복(幸福)하게 된다.

(2) 종교(宗教)가 많고 종파(宗派)가 많아야 하는 필요성(必要性) (본문 생략)

(3) 자유(自由)와 종교(宗教)

만약 고귀(高貴)한 사람에게 자유(自由)를 주면 반드시 그것은 착한 사람되는 조건(條件)이 될 것이나 만약 악인(惡人)에게 자유(自由)를 준다면 그 자유는 방종(放縱)으로 변(變)하여 다른 사람과 대중의 자유를 유린(蹂躪)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해독(害毒)이 크기가 짝이 없으므로 종교(宗教)로써 선도(善導)한 후(後)에 바야흐로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자유는 곧 자주(自主)이며 자제(自制)이다. 자주

(自主)는 곧 자각(自覺)이요 자제(自制) 곧 계행(戒行)이다. 선(善)을 행(行)하게 되면 곧 자주(自主)가 선다. 자제(自制)는 곧 악(惡)을 제어(制御)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자유(自由)와 종교(宗教)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가 있으므로 곧 자유세계의 생명이다.

(4) 과학과 종교

과학(科學)은 물(物)의 주(主)요 종교는 심(心)의 주(主)라 [도의(道義)], 물(物)과 심(心)이 상대(相對)로 병행(併進)하면 인육(人慾)은 점점(漸漸) 높아지고 인심은 점점 약해진다. 만약 도의(道義)가 없으면 그 악을 억누르지 못하여 [형이상학(形而上學)] 인간은 악으로서 멸망(滅亡)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다만 과학만으로써 능히 인간을 복되게는 못하는 것이다. 과학인(科學人)은 과학만능(萬能)의 자기 도취(陶醉)에서 종교를 백안시(白眼視)하는지라. 이로써 불진대 과학은 사람을 요익(饒益)케 하고 종교로서는 완성(完成)하는 것이다. 종교는 사회를 순화(淳化)하는데 마치 심장(心腸)과 같아서 정맥(靜脈)의 탁(濁)한 피를 심장(心腸)에서 정화(淨化)하여 온몸에 다시 보냄과 같다. 사회의 모든 악은 종교가 정화하여 다시 사회로 보내는 것이다.

(5) 정치(政治)와 종교(宗教)

정치(政治)와 종교(宗教)는 마치 사람의 육체(肉體)와 정신(精神)과도 같다. 국법(國法)에는 죄(罪)는 벌주고 교법(敎法)은

착한 것은 상(賞)을 준다. 각각(各各) 먼저 인식(認識)이 들어가서 두려우면 악(惡)은 행(行)하지 않고 환희(歡喜)하면 스스로 선(善)을 행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선으로 인도(引導)하는 것은 하나이다. 그래서 음양이원(陰陽二元)이 상대(相對)로 표리(表裡)가 병행(併行)하면 사반공배(事半功倍) 되는 것이다. 또한 도의심(道義心)의 양양(昂揚)은 민중(民衆)을 더불어 교화(教化)하고 풍속(風俗)을 화(化)케 하는 중추역할(中樞役割)을 하게 되는 것도 또한 종교로부터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고로 자유민주국가(自由民主國家)는 정치(政治)로써 그 자유(自由)를 주는 것이고 종교는 그 양심(良心)이 하는 곳에서 바야흐로 자율(自律)이 일어나고 진정한 자유민주정치가 되는 것이니 이치(理致)가 이와 같은 즉, 세계적(世界的)으로 보더라도 종교는 자유세계의 정신적 유대(紐帶)가 되어 전세계(全世界)가 하나같이 되는 것이다. 각각(各國) 국민(國民)은 국민정신(精神)과 민족사상(民族史想)은 비록 다를지나 오직 신앙(信仰)하는 종교적 이념(理念)만은 공통(共通)함이 흡사(恰似)하고 생활풍속(生活風俗)은 각각 다르지만 신앙생활(信仰生活)과 윤리감(倫理感)은 동일(同一)한 까닭이다. 이로써 본다면 정치(政治)와 종교(宗教)는 침해(侵害)하고 지배(支配)하는 입장(立場)에서는 둘이 분리(分離)해 있으나 오직 정치와 종교는 일치(協助)하여 민심을 능(能)히 수렴(收斂)하고 선도(善導)하게 되므로 도의국가(道義國家)의 성과라 할 것이다. 이를 가리켜 옛날 군주시대는 왕도정치(王道政治)라 했고 오늘날의 현시대는 진정(眞正)한 민주정치(民主政治)라 한다. (이하 생략)

종교는 세간과 출세간 사이에 서 있다.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화를 이루기가 간단치 않다.

불교의 이미지는 출세간적이다. 많은 이들에게 불교는, 속세에서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는 종교로 각인되어 있다. 출가수행을 권하고 많은 사찰이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세간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세간에서 추구하는 욕망을 끊고 번뇌 망상을 여의고자 하기에 출세간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중생 구제와 불국정도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로 본다면 더더욱 세간을 떠날 수 없다.

세상에서 벗어나 은둔한다면 고립된다. 현실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종교는 외면당한다. 반대로 지나치게 밀착하면 지탄받기 쉽다. 현실 정치에 치우쳐 타락하거나 손가락질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종교가 세상과 접하는 지점은 진리에 있다. 종교의 역할은 진리로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물질문명의 발전을 공유하고 활용하되 그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주어야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문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원전 대성사는 물질적 욕망에 내달리는 빈곤한 정신을 불교로써 정화해야 하며, 도의를 바로 세워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했다. 지혜로써 자각하고 계행으로써 자제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했다. 욕망으로 치닫는 물질문명의 폐해를 멈추는 브레이크가 되고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족비가 되어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길이 되고 의지처가 되어야 하는 종교가 언제부터인가 등불이 되기는커녕 도덕성에서조차 지탄을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속의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이자 지극히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출리심이다.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한낱 물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출세간이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갈애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관계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문제로 이어진다. 수행과 변화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 각성하고 먼저 나서야 한다. 하지만 나만 깨달겠다거나 내가 먼저 깨달겠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또 다른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나도 괴롭고 남도 힘들기에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 영원히 행복한 길로 다 같이 나아가겠다고 할 때 수행은 힘이 생긴다.

내면의 자각과 자기 수행이 없는 중생구제는 표피적이거나 일시적이기 쉽다. 자칫 잘못하면 시혜를 베푸는 생각에 사로잡혀 또 다른 우월감과 자기과시에 빠질 수 있다. 이타행이 없는 수행은 현실도피가 되기 쉽다.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는 시끄러운 생각도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분노도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대하면 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경계를 만나서 여여하고 순일할 때 진정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 길고 나무하는 일상이 묘한 도리라고 했다. 그렇게 매 순간 깨어있고 맑아질 때라야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잠 잘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움이 발현되리라 생각한다. 해 인사 법보전 주련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원강도량은 생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이곳이다. 현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때 불교와 불교인은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BBS <두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왕생법문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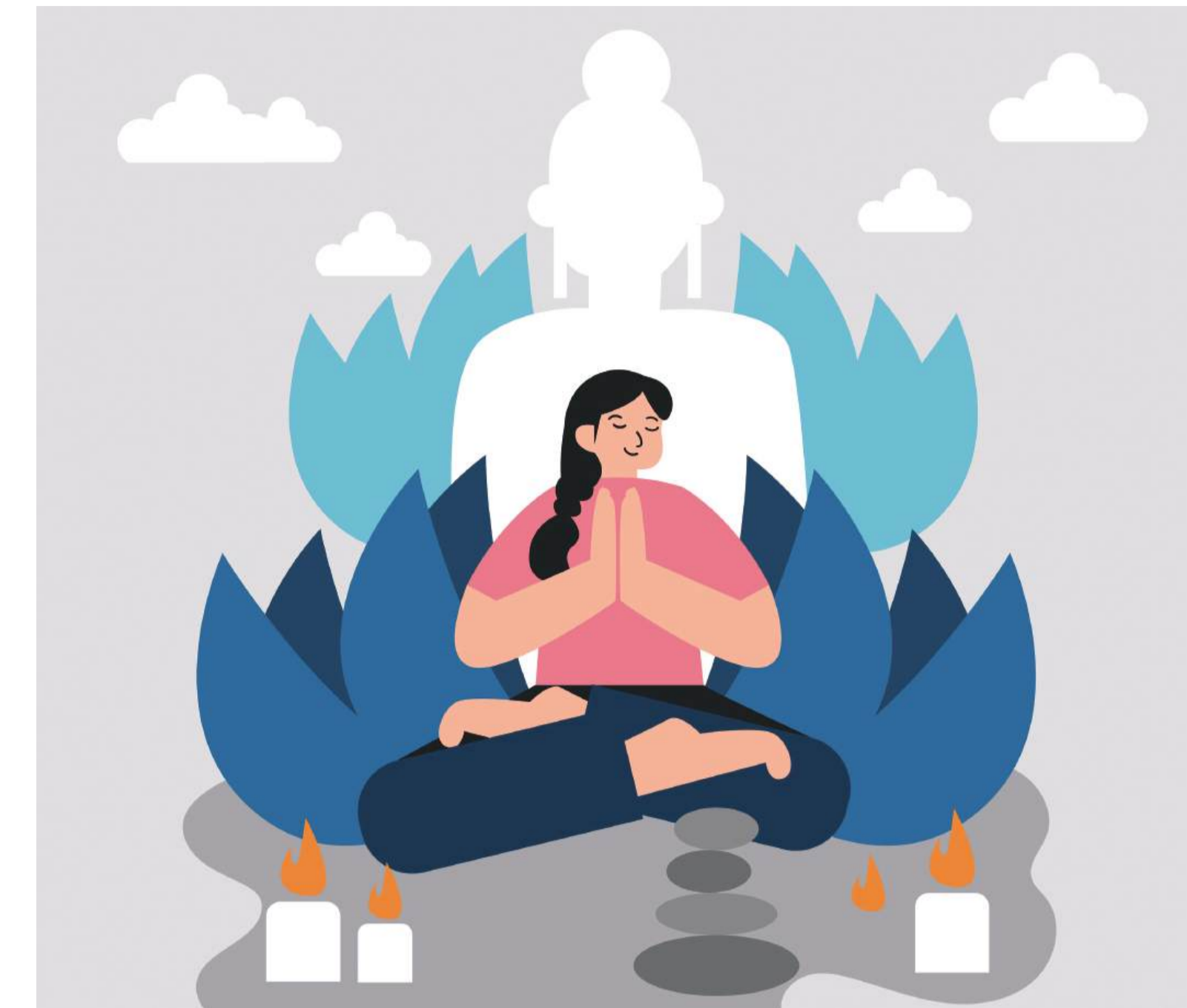
요즘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남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정보도 모두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불신은 세속을 넘어 이제는 종교와 성직 자까지도 믿지 못하는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도 많은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존재하리라는 것에서부터 막연하지만 세상은 소소한 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믿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면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연초부터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할 테지만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견고하지 못하면 종교도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엄경』 권14 <현수품>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온갖 선법을 길이 기르며, 의심을 끊고 애착에서 벗어나 열반의 무상도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인생의 하루하루는 아무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편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를 이루는 기초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강경』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생하리



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세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써 능히 들어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다면 보살의 지위든, 부처의 지위든 어떤 조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내 허망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허망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며 진실하고 보편적인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현상도 허망하지 않은 것이 없고, 보편과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만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불광선사 성운 대사는 “의심은 근본적인 번뇌의 하나로 세상에 의심으로 빚어진 수많은 비극이 있습니다. 의심은 일단 일어나면 바늘처럼 자신을 찌를 듯 움켜매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 어떤 사람

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이웃집 사람을 의심하자 갑자기 이웃집 손이 도끼를 훔친 손처럼 보이고 걸음걸이도 훔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자신에게 친절한 것조차도 죄를 숨기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끼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다른 곳에 두었다는 사실이 알게 된 후 이웃 사람을 보니 조금도 도둑같이 보이질 않았습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피차간에 거리가 생기고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하물며 진리를 의심하면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전으로 흘러들어와 감흥할 수 있을까요? 『대지도론』에 “불법은 마치 대해와 같아 오직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

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일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위대하여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열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하는 원리가 있어 심성을 맑고 깨끗하게 합니다.

둘째,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심성을 순수하고 견고하게 하여 무엇인가를 빨리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온갖 슬픔과 괴로움, 번민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넷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싫증이 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할 수 있어 해태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 보살행에 대해 동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섯째, 비단 종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을 가벼이 보지 않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일곱째, 우리가 본 것, 배운 것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배운 바대로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남의 좋은 점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축원해 주고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홉째, 마음을 끈끈이 간직하고 있어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열째, 자비심을 성취하게 하여 남을 사랑하고 즐겁게 해주는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신심명』에 “신심불이 불이신심(信心不二 不二信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일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마음을 믿는 일이며 그렇기에 둘이 아닌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처란 바로 우리 마음 본래의 묻지 않은 청정한 모습과 같기에 자신의 참다운 마음자리를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는 것입니다.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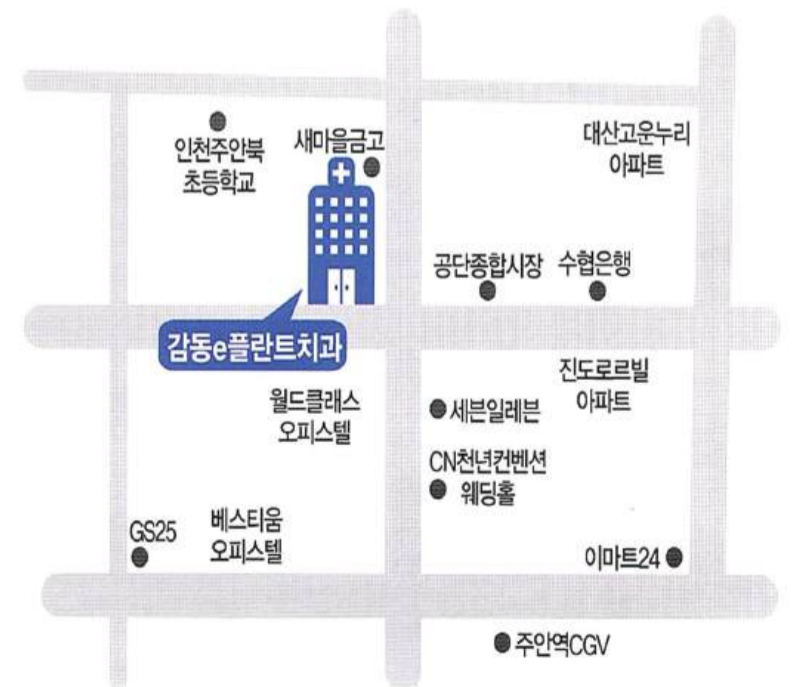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라ント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마음은 그대로이나 몸은 새털처럼 가볍게 됐다. 불공 잘하라”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40화>
최종회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수 74세)

교의와 수행 체계 역시 발전을 거듭했다. 밀교 수행의 궁극 목표는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곧 부처라는 철저한 자각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이 몸 그대로 현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개인의 자성과 법신불의 진리를 합일하기 위해 삼밀가지(三密加持) 수행법을 닦는다.

원정 대성사는 이를 ‘현세정화(現世淨化) 즉신성불(即身成佛)’의 가르침으로 구체화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이라 해도 가까이하기 어렵다. 환경이 순탄하지 못하면 불도수행도 여의치 못하기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밀교의 의례 가운데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의례들은 성불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수행 여건을 조성하여 중생을 성불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질병과 재난 등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행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개인의 욕망을 승화하여 보다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발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고통은 사회 환경의 조건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정 대성사는 항상 이 사회에 필요한 중

교, 나라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재난을 여의고 복을 이루며 세상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자신의 불성을 밝혀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라고 가르쳤다. 성불은 결코 특별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떠나면 다음 생을 기억해야 하는 일도 아니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불할 것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했다.

즉신성불을 지향하는 고도의 차원 높은 수행법과 재난을 여의고 복을 이루는 현세이익의 의례법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개인과 환경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현세정화와 스스로 불성을 자각하고 부처와 하나 되는 즉신성불이 진언행자의 수행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육신의 소멸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칠순이 넘은 노령의 육체는 쇠약을 피할 수 없었으니, 법계의 불사는 남아 있어도 대성사는 세상의 인연이 다함을 느끼고 있었다. 육신은 물질이니 소멸의 인과를 따라가나 마음은 법신과 함께하여 법계에 그 원을 새겨 영겁을 거듭해 현전하는 법이라고 주변에 일렀다. 당시 스승들은 대성사로부터 더 많은 법을 전해 받고자 경을 보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와 묻곤 했다. 세세히 설명했으나 때가 됐음을 알아 안타까운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건 이런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자네는 아직까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 이를 어찌할 터인가…….”

대성사의 몸은 쇠하여가도 눈빛은 빛을 잃지 않았다. 병고의 고통 없이 시절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곱기를 물려 세간 인연을 정리하였다.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되어 주변 사람이 들것에 대성사를 들어 옮기자 이런 말로 안타까움을 대신했다.

“이 육신으로 세상사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나, 이젠 이렇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때가 왔구나. 마음은 그대로이나 몸은 새털



처럼 가볍게 됐다.”

아쉬움은 남고 안타까움에 가슴 시린 날이 왔다. 인연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무상하나 가르침은 그치지 않고 천세를 넘어 억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몸은 허깨비 같고 세월은 아지랑이 같아 잡을 수 없고 멀하는 슬픔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다. 1980년 9월 8일, 몇몇 스승과 교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성사는 마지막 법문을 남겼다.

“불공 잘하라.”

평소의 가르침대로 짧고 강한 말이다. 태양은 사라지지 않고 빛은 우주에 가득하니, 세원이 다하는 순간에도 삼밀의 공덕을 당부하였다. 처음과 끝이 같고, 세상에 온 뜻과 법계로 돌아간 원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국 현대 밀교를 일으켜 법답게 위의를 갖추게 하고 정통 밀교를 바로 세운 인연은 세상의 인연 74년을 끝으로 빛으로 돌아갔다. 법계가 다하도록 공덕은 무량하고 복덕은 무진하니 후세의 제자들과 스승들과 교도들



서울 역삼동 불교총지종 본산 소재 원정기념관 내부 모습(위)과 외관.

이 그 은덕을 이어 진리를 구현할 바이다.

대성사는 법계와 일체가 되어 지금도 가르침으로 머무시니 그 뜻을 받아 삼밀을 성취하고 세상을 위해 총지의 진리를 전할 것이다. ‘불공 잘하라’는 대성사의 가르침은 오늘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 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

『종조 법설집』 중에서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생활불교 재가종단, 진정한 사부대중 공동체로 뿌리내리다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3. 재가 불교종단의 위상 제고

불교계 최초 여성 통리원장 취임

정통불교의 가치를 생활불교 재가종단으로 구현하여 승가와 재가가 똑같이 수행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불교상을 실현해 간 종단의 역사는 승직자와 교도 모두의 수행, 교육, 복지 체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 사원과 종단 운영에 신경회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법륜회와 신경회의 복리후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뿌리내렸다.

각 사원의 승직자는 교도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이자 모범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세심한 지원으로 교도들의 삶의 질을 챙겨 스승과 교도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높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남녀 승직자가 주교, 교구장, 통리원, 종의회, 법장원, 중앙교육원, 사감원 등 전 영역에 걸쳐 차별과 제약 없이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평등하고 화합하는 승가상을 확립하여 여타 불교 종단과 종교계에 모범이 되었다.

1997년 불교계는 물론이고 종교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성 통리원장이 취임했다. 제11대 통리원장에 총지화 전수가 임명됐다. 이미 창종 초기인 1974년 복지화 전수가 종의회 의장을 역임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법장화 전수, 1989년 대자행 전수가 종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1985년 복지화 전수, 1994년 총지화 전수가 사감원장을 맡는 등 여성 승직자가 중책을 맡은 바 있지만 행정기구의 수장인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종단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한국불교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10월 22일 거행된 통리원장 이취임식은 교계 안팎의 주

목을 받았다.

총지화 전수는 원정 대승사를 보필하여 종단 창종에 기여했으며, 1973년 대전선교부 설립에서부터 중부지역의 중심도량 만보사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에서 4년 동안 수학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종단의 화합과 밀법 흥포에 헌신했다. 총지화 전수가 남다른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통리원장으로서 종단 행정을 통솔함으로써 남녀노소 일체의 차별과 제한을 두지 않는 종단의 철학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창종 초창기부터 줄곧 수많은 여성 승직자가 사원의 책임자인 주교를 비롯하여 모든 직책에 동등하게 참여해 온 전통은 불교계 최초의 여성 통리원장 임명으로 진가를 드러냈다. 이후로도 2002년 법수원 전수가 사감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0년과 2013년 법상인 전수가 사감원장을 연임하는 등 능력에 준한 여성 승직자의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불교문화행사 참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불교계와 교류하고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재가불교의 위상을 제고한 종단은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생활불교 철학을 대중에게 알렸다.

1996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한 불교문화 대제전에 종단은 기간 내내 전시관을 운영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BTN이 주관한 이 행사는 '연꽃 향기 누리 가득하'라는 주제로 1만여 평의 행사장에 문화관, 생활관, 공연장 등



여성 승직자가 모든 직책에 동등하게 참여해 온 총지종은 1997년 불교계 최초의 여성 통리원장을 탄생시켰다. 1999년도 한일불교교류대회 참석 중인 제11대 통리원장 총지화 전수.



한국불교박람회를 통해 종단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총지종관.

으로 나눠 불교문화 전시 및 각종 이벤트를 제공했다.

종단관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중앙에 행사용 아의 본존과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를 배치하고 비로자나불, 관세음보살, 준제보살이 그려진 불화를 전시했다. 우리나라 밀교 종단 중 유일하게 행하고 있는 준제결인 등 여러 수행상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각종 염주와 『대일경』, 『준제다라니경』 등 희귀한 목판본 밀교 경전을 전시했다. 전시관 중앙 본존 앞에서 매일 초를 켜고 향을 사르며 진언염송하는 모습은 일반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양계 만다라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이 지대했으며, 유가삼밀 수행법과 후대용으로 나눠준 호신 다라니에 대한 호응도 대단히 높았다.

교무와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교대로 전시관에 배치되어 밀교를 낯설어하는 관람객들에게 종단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별도로 마련된 총지종의 날 행사에서는 총지종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흥성, 조국 평화통일과 국민안위를 기원한 후 삼밀의례에 의한 염숙한 의례를 재현했다. 이어 국방부 합동 군악대의 우렁찬 반주에 맞춰 240여 명의 총지종 연합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펼치고 신명 나는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져 여의도광장을 뒤흔들었다. 전시 기간 내내 일사불란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종단의 결속력과 지극한 신심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종단의 귀감이 되었다.



1996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불교계가 함께한 '불교문화대제전'에서 9월 11일 '불교 총지종의 날'을 맞아 대규모의 법회와 문화행사를 펼쳤다.

다채로운 불교문화와 불교 관련 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한국불교박람회가 2006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불교 관련 상품과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를 전시한 한국불교박람회에 종단은 2회부터 참여했다. 2007년 3월 22일 서울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불교박람회는 각 종단 홍보관과 사찰건축, 사찰음식, 불교 전통공예품, 다기, 불교문화용품 등 모두 110개 단체가 운영하는 3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됐다.

종단 부스에는 총지사 불단장염인 육자진언 본존과 양계 만다라를 실사 인쇄하여 설치하고 조립식 미니불단을 제작하여 종단의 불단 양식과 서원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매일 오후 진호국가 불공법회를 열고 향로에 태우며 개인의 서원을 비는 호마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불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종단 수행법인 삼밀관행 수행 모습과 밀교의 역사, 종단의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종단 홍보 소책자와 『불교총전』 등 종단 책자와 불교용품을 전시 판매했다. 전시 기간 내내 옴마니반메흠 염송 음악과 종대팔염원의 모습 등을 곳곳에 배치하여 밀교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가운데 옴마니반메흠 등 밀교를 상징하는 종단 콘텐츠 상품을 제작 판매했다.

이후로도 매년 한국불교박람회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열어 밀교를 낯설어하는 이들이 친근함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진언과 만다라를 중심으로 종단의 이념을 알리고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다라 퍼즐, 크리스털 다라니 등 세련된 불교 상품을 선보여 종단 홍보는 물론 불교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선문염송』의 선밀쌍전

‘조선왕조실록’ 태조 4년 을해(1395) 4월 25일 태조는 사신을 총지사(摠持寺)와 현성사(賢聖寺) 등에 보내서 부처님께 천변(天變)을 제거하는 재를 올렸다. 정종 2년 경진(1400) 3월 15일 태백성(금성)이 낮에 나타나 7일 동안 현성사(賢聖寺)에서 기양문두루도량(祈禳文豆叟道場)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국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올렸던 기양도량이 조선 초까지 이어진 사실을 전한 것이다. 태종 때 종단을 통합하면서 선교 양종만 남았지만 실제로는 선찰만 남았고 밀교로서 국가 환란과 대중을 위무하는 선밀쌍전(禪密雙全)이 조선불교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 전통은 오늘에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선문을 적시하는 중요한 선적으로 『선문염송(禪門拈頌)』이 있다. 고려시대 수선사(修禪社) 제2세 진각국사 혜심(慧諶)이 역대 선사들의 공안과 후인들의 염(拈)·송(頌) 등을 모아 편집한 것을 후배인 몽여(夢如)가 증보한 불교 공안집이다. 혜심은 석가모니를 비롯한 선종의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착어를 모아 1226년에 간행하였고, 수선사 제3세인 몽여는 다시 347칙의 공안과 착어를 추가하여 1243년에 증보·간행하였다.

선문의 공안 참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불교에서 행세하려면 이에 대한 교양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자리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둔한 머리로 헤아려 보면 많은 공안들은 분별과 무분별의 경계를 무수히 시험하는 것이다.

『선문염송』의 ‘불감 혜근(佛鑑 慧勸)의 상당’에는, “후대의 선객들이 모두 ‘세존께서 당시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 하거나 혹은 ‘세존께서 당시에 묵묵히 계셨다’라고 하며, 혹은 ‘말없이 있으셨다’라고 하거나 ‘자리에 기대어 가만히 계셨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이치를 가지고 떠드는 말은 모두 식정(識情)에서 나온 분별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선객이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를 전하고 방을 떨치고 나아가도 눈 밝은 스승은 오히려 한탄할 뿐이다.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선문은 인도불교와 동아시아를 아득하게 별려놓은 소통하기 힘든 장벽처럼



고려 후기의 승려 혜심(慧諶)이 편찬한 선문공안집(禪門公案集) 『선문염송(禪門拈頌)』, 대전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36호.

를 담보로 말한 것이다. 달마가 전한 『능가경』은 중관의 관문이다. 눈 밝은 조사치고 인도의 경권을 소홀히 한 스승은 없었다는 뜻이다.

『선문염송』에는 ‘밀암 함걸의 거’가 있다. 밀암 함걸(密庵 咸傑, 1118~1186) 선사는 송 시대 복건성 출신으로 음암 담화(應庵 曇華)의 법제자이다. 여러 총립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음암 선사를 참알했다. 음암 선사가 방장실에서 묻기를, “무엇이 정법안(正法眼)인가?” 하자 밀암은 “깨진 사기그릇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음암 선사를 수긍하고 밀암을 법제자가 되게 하였다. 무슨 뜻일까? 선문답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간략히 말하면 정법안장을 말하는 순간 이미 분별에 떨어진 높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한 것이다.

『선문염송』의 ‘거’에는 밀암이, “대중 가운데 황면노자의 주인이 되어 줄 사람 있는가? 있다면 나와서 나, 오거와 한번 만나 보자.” 잠깐 침묵하다가 ‘흠!’ 하고 소리쳤다”라고 한 대목이 있다. 여기서 오거는 밀암이 오거사(烏巨寺)에 거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침묵 뒤의 흠[良久云, 吽!]을 모르는 진언문의 논객은 없을 것이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보인다. 인도불교사를 보면 밀교는 4, 5세기 이후 논리학을 세워 비로소 진언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밀교경전의 인도 주석은 모두 후기 중관파, 혹은 유가행중관파의 논리적 서술이다. 나가르주나의 이제설과 유식의 논리가 만나 무분별지를 이끌어 낸다. 선문에서 분별을 말하는 것은 무분별지를

원정 사상, 화엄·선·정토에 두루 통해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苑淨)의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준제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외래 전승
- V. 결어

2. 역사관과 준제진언

2) ‘현밀원통성불심요집’과 교판론

현대 불교종단에 있어 종지(宗旨)와 종풍(宗風)은 종단의 철학과 건립 이념을 표방하는 것이어서 중요하다. 여기에는 타종단과 구별되는 교상관석을 표방하기 마련이다. 원정은 요송대도전의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輯)』을 깊이 연구했다.

도전이 활동하던 시대는 당조 밀교가 쇠망한 이후였으며, 양계 부법을 포함한 정비된 밀교도량은 이미 산실되었다. 도전의 저작은 제목에 나타난 대로 현교와 밀교의 교상을 밝히고, 성불의 핵심적인 수행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요송대 동아시아는 중국의 혼란기와 달리 고려, 일본은 밀교가 여전히 성행하였으며, 양부 부법의 일부가 선, 화엄 등과 결합한 지역의 독자성을 보여 인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원정은 요송대의 밀교 전적으로부터 조선시대 이루어진 선, 화엄, 밀교회통의 교상관석의 길을 찾은 것 같다. 원정의 법문에서 선과 화엄, 밀교가 어우러져 있는 장면은 다음

과 같다.

인간과 자연계가 따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연계는 인간에 의하여 실현된다.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종속하는 것이다.

한 조각 풀잎에도 우주정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밀교에서는 육대·사만·삼밀의 법신체로 보고 육대연기(六大緣起)라고 하며 색심불이(色心不二), 즉, ‘당상즉도(當相即道) 즉사이진(即事而真)’의 부정이 아닌 현실 긍정의 교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하나의 곧 전체요 전체는 곧 하나이므로 ‘만법귀일(萬法歸一) 일생만법(一生萬法)’의 원리에서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고 하여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事)와 이(理), 이사무애(理事無碍)·사사무애(事事無碍)의 사법계(四法界)가 그것이다.

종파나 교단들은 역사적으로 종학의 일관성과 우위를 부여하려는 교상관석의 논쟁을 벌여왔다. 원정의 사상은 화엄의 사법계관에 통하고 선과

정토에 두루 통한다. 불교사의 면면한 흐름은 바다의 가르침이 인도의 종교사상과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종학의 이론과 수행실천 체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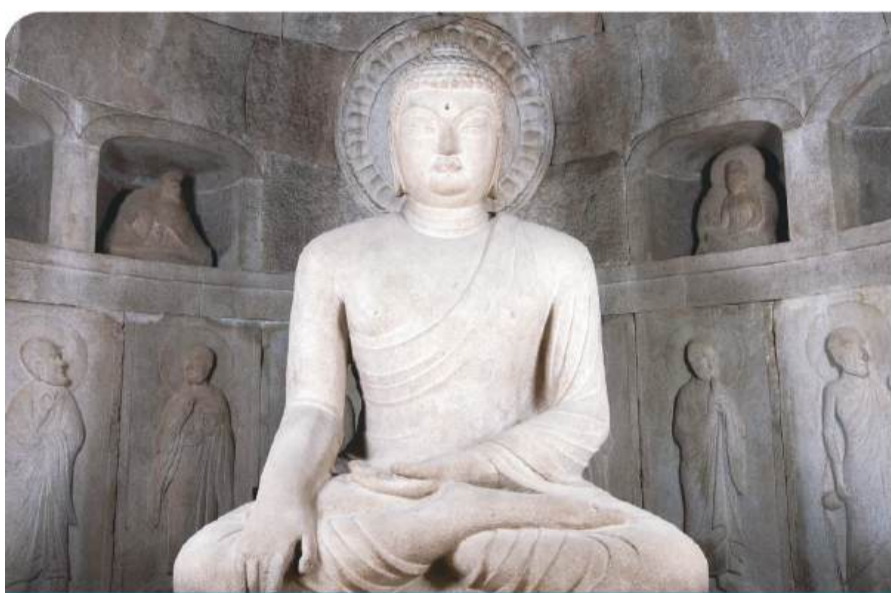
경상도 진주 서삼장사 대원암(大源菴) 목판본은 영조 4년(1728) 목판본으로 역시 준제정엄이라 하였으며, 본경 외에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비로자나총귀진언(毗盧遮那總歸真言)을 더한 합본으로 소개하고 있다. 비로자나총귀진언은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으로 삼장 가운데 핵심 경전을 진언화하여 그 공덕을 염송하는 것이다.

원정은 동아시아 불교의 주축을 이룬 선과 화엄, 밀교의 회통을 고려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불교사에서 현밀의 교상관석과 당조 이후 선밀쌍수의 중심으로서 조선밀교로부터 계승된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다. 원정은 현대 밀교종단의 역사성과 밀교부흥으로서의 교상관석, 그리고 조선불교의 선밀쌍수의 근거를 제시해 현대 밀교가 지닌 위상과 정통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성준 박사

현	법	재	판	소	꽃	한	과
답				방	계	시	판
시	행	일	관	불		승	부
주		장	례	로			창
		춘		장	산	꽃	부
전	도	몽	상	생	감	로	수
기		처	방	아		편	
자	비	심		갈	비	탕	못
동		술	래		달		난
차		보			마	수	걸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펼쳐 읽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경전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을 가려뽑고 간단한 단상을 덧붙였다.

이 책은 온갖 욕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가르침들은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화령 지음/사륙판/232쪽/값 12,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석관실버복지센터, 2025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강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가 활동 지원에 앞장”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룡경 정사)이 운영하는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 달 3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2025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2025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학습, 취미, 건강프로그램과 치매 예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두뇌 건강 클래스, 보드게임 자율 이용 등 총 26개 강좌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질 높은 강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과 노

년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 프로그램을 다수 증설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총 6개 자체 동아리를 운영하여 어르신 중심의 주도적 활동과 수준 높은 교육 내용을 제공함에 따라 깊이 있는 학습과 사회적 교류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며, 더욱 활기찬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나석원 센터장은 “2025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새로운 학습과 정보를 익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 하였으니, 많은 어르신께서 우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의: 02-957-9923.

신록의 3월, 만물의 생성 원리다

봄빛이 완연하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생기가 솟아나고, 길옆에 도열(道列)한 초목은 날로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가자 도처(到處)에 희망과 기대의 싹이 돌아나고 있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봄은 축복의 계절인가 보다. 3월은 생명의 계절이고, 희망의 계절이며, 모두가 추구하고 싶어 하는 행복의 계절이다. 봄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니다.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어서도 아니다. 봄꽃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모진 겨울을 스스로 견뎌내고,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 위에 수많은 봉오리를 터뜨려 줄 뿐 아니라 희망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봄꽃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삶의 희망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 삶에 생기(生氣)를 불어넣어 주고 희망과 기쁨을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봄꽃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W. 위즈워드는 ‘3월의 노래’에서 탄생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닭이 운다./ 시냇물이 흐른다./ 재잘거리는 새 떼/ 반짝이는 호수/ 푸른 별은 햇볕 속에 잠이 들었다./...<중략>.../ 산에는 기쁨이/ 샘에는 생명이 있어/ 비 갠 좋은 날은/ 돛 달고 푸른 하늘을 달리는/ 작은 구름 조각이 씩씩도 하다.”

3월도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왔다. 대지를 뚫고 분출하는 생명의 포효(咆哮), 3월은 로마의 군신(軍神) 마르스처럼 생존의 공격적인 몸부림으로 찾아왔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3이라는 숫자는 만물의 생성 원리다 여겼다.

노자는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하였고, 우리의 전통 무속에서는 아이를 점지해 주고 아이의 병을 다스려 성장을 관장하는 삼신(三神) 할머니를 산신(産神)이라고도 하여 생명의 탄생과 직접 관련을 지었다.

그런가 하면 또 3을 성수(聖數)로 쳐서 완전함을 뜻하기도 하는데,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라’, ‘소경 셋이 모이면 못 읽는 편지가 없다’,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등에서 셋은 부족함이 없는 숫자이며, ‘부모가 구존(俱存)하고, 형제가 무고(無故)하며, 천하의 영재(英才)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君子)의 삼락(三樂)’이라 한 것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공자는 삼계(三戒)라 하여 ‘젊은 시절에는 여색(女色)을, 장년에는 다툼을, 노년에는 이욕(利慾)을 경계하라’고 하였으며, ‘정직한 벗, 성실한 벗, 박식한 벗은 도움이 되는 세 벗[三益友]으로 가까이하고, 영합하여 비위를 잘 맞추는 벗,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견이 없는 벗, 주대가 없고 걸만 부드러운 벗은 해가 되는 세 벗[三損友]이라 멀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나 가장 안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우리의 전통 가마솥의 솥발도 세 개요, 깃대를 꽂는 깃봉 발침도 역시 세 개다. 또 3이라는 숫자는 또 액(厄)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除厄招福] 기원이 배어 있는 주술적 숫자이기도 하다.

남해안 지방에서는 주로 삼월에 배를 만드는데, 배의 들보를 올릴 때 제주를 3번 붓고, 배를 진수시키는 날이 정해지면 선주는 삼일을 배 안에서 자고, 3일 동안 굶을 하는 것도 3이라는 숫자가 탄생과 안전, 안전의 근본을 상징하는 무속 신앙의 명제에 근거한다.

전국 각급 학교의 입학식도 또한 삼월이다. 학교마다 새 생명이 해일처럼 넘쳐흐르는 3월의 학교 마당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쁘고 희망이며 청춘의 출발이기도 하다. 신록의 이 3월에 우리 모두 축복의 마음으로 3월을 노래하자.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우리 시대 ‘영혼의 스승’

BOOK 소리

비구 법정
원적(圓寂) 15주기 추모 평전

여태동 지음 | 덕조 스님 감수 | 512쪽
가격 2만 9000원 | ㈜중앙출판사 발행
발행일자 : 2025년 2월 23일

‘무소유’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전하고 2010년 원적(圓寂)에 든 법정 스님(1932~2010)의 15주기를 맞아 스님의 일생과 사상을 조명한 평전 ‘비구 법정-우리 시대에 다녀간 영혼의 스승’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그동안 알고 있던 자연 친화주의자이자 에세이스트로서의 법정 스님이 1960년대부터 원적에 들기까지의 수행과 삶을 만날 수 있다.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계를 대표한 사회 민주화 인사로서의 행적이 곳곳에 담겨 있다. 이 책은 30년 넘게 불교신문 기자로 재직했던 여태동 기자가 박사논문인 ‘법정의 시대정신 형성과 전개 과정 연구’와 2020년 불교언론문화상 신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법정 스님의 만상좌 덕조 스님(서울 길상사 주지)이 감수해 ‘법정학’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령 정사의 열반의 경지

담대빠다 톨아보기

마음을 잘 가꾸어 깨달음에 머물며, 욕심도 벗어 놓고 집착도 없이 청정함에 빛나는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열반을 얻는다.

열반은 최상의 안온한 경지입니다. 괴로움이 없어진 경지가 열반입니다. 불교의 열반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 그 자리가 바로 열반입니다.

완전한 열반은 얻지 못할지라도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만큼의 열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월 21일 ~ 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법선	1/23	10,000	덕화사	법상인	1/24	2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신찬호	1/31	10,000	정각사	김종국 이승이	2/14	171,287
	김규리	2/8	100,000	동해사	김진화	2/2	10,000	선립사	지명	2/4	10,000		노점호	2/18	10,000
	김병석	2/19	10,000		송인근	2/20	10,000		최선해	1/24	10,000		탁상달	2/18	10,000
국광사	진여	2/20	10,000	만보사	강명순	2/5	10,000	세곡기움센터	남경식	1/24	10,000	제석사	법일	2/20	10,000
	공덕성	1/23	20,000		이중구	2/11	7,000		김경희	1/31	30,000		이진승	1/30	10,000
	수증원	1/23	10,000		김정희	2/19	10,000	수인사	법상	1/24	20,000	총지사	무명씨	1/21	50,000
	밀공정	1/23	10,000		황갑용	1/31	20,000		김예선	2/3	20,000		김정환	2/2	10,000
	법지원	1/23	10,000	밀인사	박길선	2/10	10,000	시범사	해광	2/9	10,000		유은혁	2/7	10,000
	일성혜	1/23	10,000		덕광	2/10	20,000	실보사	이순영	2/9	20,000		정연경	2/7	10,000
	사홍화	1/23	10,000	법성사	남혜	1/23	10,000		박성호	1/23	10,000		백귀임	2/10	10,000
	안주화	1/23	10,000		장정숙	2/17	10,000	실지사	이순옥	1/23	10,000		최영아	2/10	10,000
	진일심	1/23	10,000	법천사	신말심	2/17	10,000		황성녀	2/3	10,000		최지아	2/12	10,000
	시각화	1/23	10,000	법황사	반야심	1/31	10,000	운천사	정우석	2/14	10,000		신현태	2/17	10,000
	최상관	1/23	10,000		인선	1/23	10,000		보명심	1/24	10,000	해정사	최영례	1/31	10,000
	연등원	1/23	10,000		정계월	1/23	10,000		이성미	2/4	50,000		강동화	1/24	10,000
	자선화	1/23	10,000		박미경	1/31	10,000		반야화	2/11	20,000		박대성	2/1	10,000
	승효제	1/23	10,000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2/3	8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1/31	80,000		박대영	2/1	10,000
	주신제	1/23	10,000	사원명무기명	하명순	1/31	10,000		연명구	2/3	20,000		홍춘자	2/1	10,000
	총지화	1/23	10,000		무명씨	2/4	10,000	자석사	도우	2/10	10,000		무명씨	2/4	10,000
남산초등학교	엄미선	2/6	10,000		박필남	2/10	10,000		지현	2/10	10,000		송하나	2/4	10,000
	정석만	2/16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1/24	5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1/31	80,000		송호영	2/4	10,000
단음사	이규성	2/17	10,000		이태운	1/25	10,000	정각사	안한수	2/9	10,000	힐스어린이집	송영근	2/4	10,000
	지홍	1/21	10,000		박현정	1/25	20,000						곽방은	2/10	80,000



총지로 여는 삶 ⑤

존재의 무게

나와 일체중생의 존재감은 얼마쯤 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체계는 꼭 인상적입니다. 부처님이 전생 수행자일 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매 한 마리가 날아와 새를 사냥하지 못하면 자신이 굶어야 하니 새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살을 매에게 대신 주어 매와 참새를 둘 다 살리는 희생적인 묘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계량은 정확히 해야 하니, 수평 저울을 놓고, 한쪽 접시에 참새가 올라가고 다른 쪽 접시에는 부처님의 살을 베어 올렸습니다. 팔뚝 살을 듬뿍 베어 '이 정도면 낡겠지' 하였지만 저울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반대편 팔뚝 살, 종아리 살, 허벅지 살, 차례로 베어 올려도 꺾지도 하지 않다가, 온몸의 살을 다 베어 올리려야 마침내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물리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참새의 존재 무게와 한 인간의 존재 무게가 동등하다는 비유로는 이보다 지혜로운 이야기가 없는 듯합니다.

고려의 학자 이규보 선생도 그의 수필 '술견설(風犬說)'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입니다. 어떤 손님이 찾아와 사람들이 개를 죽이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끔찍하더라고 하니, 주인은 어떤 사람이 이를 잡아 화로에 넣는 모습을 보니 끔찍하더라고 응대합니다. 자신을 놀린다고 화를 내는 손님에게 주인은, 걸보기로는 크고 작고, 중요하고 사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존재의 가치

는 서로 다르지 않으며, 목숨이 붙어 있어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인간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생태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입니다. 예전에는 생태계에는 환경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물종이 따로 존재하니 이 종을 지표로 삼아 생태 환경을 감시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주춧돌 이론'이 주류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비행기의 동체를 고정하는 리벳 못이 하나씩 빠지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태계도 한 종씩 사라지다 보면 어떤 순간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오니 어떤 종이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리벳 못 이론'이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삼국유사'의 '사금갑(거문고갑을 쏘라)' 이야기에서는 반대 견해를 보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21대 비처왕(또는 소지왕이라고도 함)이 사냥을 나갔을 때, 쥐가 사람의 말을 하며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연못에서 나온 노인을 만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걸봉에는 '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망설입니다. 일관(日官, 하늘의 변이로써 인간의 길흉을 점치던 관원)이 "두 사람은 서민이고, 한 사람은 왕입니다."라고 아뢰니 결국 편지를 열어 보고, 급히 궁으로 돌아와 거문고갑을 쏘아 그 안에 숨어 있던 승려와 그와 내통하여 역모를 꾀한 왕비를 죽이고 나라를 지킵니다.

아마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까마

귀, 쥐 등은 서민을 일컫는 표현일 것이며, 여러 정황을 보건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왕에게 알릴 것인가를 궁리했던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는 왕과 서민의 존재 무게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를 리 없고, 일체 생명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에선 또 다른 이유가 더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에도 뇌세포와 각종 장기의 세포 또는 피부세포가 그 역할과 중요도가 다 다른 것처럼, 사회조직에서 수장의 역할과 중요도는 말단의 역할, 중요도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결핍과 광기와 전쟁의 시련을 견디며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유례 없는 속도로 이룩했지만, 사회적 소속감의 결여와 미래 생존에 대한 개인적 불안은 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나를 볼 때, 타인을 볼 때, 조직 내의 위상으로 볼 때, 조직 자체의 존재성을 볼 때, 그 모든 존재의 무게를 지혜롭게 따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과 전체의 짜임에 따른 무게의 배분을 깊이 고려하고 또 고려하는 신중함이 누구도 불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으로 이어져 마침내 화합으로 수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처처불공하는 총지 중도의 정진력과 수행력이 현세정화의 지혜로 빛을 발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옴마니반메후.

이상주 교도 (자유기고가)



인도성지순례기 - ③신들의 강 갠지스

녹야원 성지순례를 마치고 호텔에서 저녁 공양한 후 갠지스강으로 향했다. 호텔에서 갠지스강은 차로는 멀지 않은 곳이지만 버스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 약 7km 거리를 리카(자전거로 끄는 인력거)로 이동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이라 도로는 사람과 리카, 오토리카, 오토바이, 자동차 등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이동하는 것이 대환란 그 자체였다. 리카에는 2명씩 탔는데 공간이 협소해 움직임이 불편했다. 대환란의 위험한 도로라 위험을 느꼈는지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앞에서 비쩍 마른 사람이 힘겹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모습이 안쓰럽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곤 사치스러운 몸의 불편함은 곧 사라져 버렸다.

갠지스강 초입에 도착해 1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했다. 갠지스강으로 가는 길은 호객꾼과 관광객, 성지 순례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갠지스강에 도착하니 넓은 가트(Ghat: 강변의 계단식 시설)에 인파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사이를 지나 강변에 정박해 있던 보트 위에 올라타 아르티 뿌자(Arti Puja)를 관람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갠지스강변의 계단식 가트와 강변에 정박해 있던 수많은 보트에서 힌두교의 중요한 의식인 아르티 뿌자를 보고 있었다.

아르티 뿌자는 불을 사용해 신에게 경배하는 제사 의식이다. 바라나시에서 강가(GANGA: 시바신의 아내 신)를 경배하는 의식으로, 동시에 시바신에게도 경배를 드린다. 아르티 뿌자는 매일 저녁 일몰 후에 행해진다. 의식을 행하는 곳에는 여러 명의 브라만 사제가 우산을 받쳐 놓은 단에서 서서 갠



사진=남해 정사

지스강을 향해 향을 태우는 듯한 큰 램프를 돌리고, 찬트라는 힌두교의 전통적인 노래를 부르며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르티 뿌자는 불꽃이 줄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르티 뿌자가 끝나자, 사람들은 꽃과 초를 강에 띄우며 각자 서원하는 기도를 했다.

인도 사람은 갠지스강에서 목욕하거나 물을 마시면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를 안내해 주던 인도인 가이드도 갠지스강에 도착하자 먼저 강물을 마셨다. 갠지스강의 가트 주변에는 화장터가 많이 보였다. 갠지스강으로 가는 중에도 여러 명의 남성이 시신을 어깨에 둘러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보트를 타고 갠지스강변을 둘러보는 동안 화장터 여러 곳에서 불길기 치솟았다. 내가 탄 보트는 화장터 한 곳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서 시신을 갠지스강물에 씻고 화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인도 사람은 화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 영혼이 사진에 갇히게 되어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화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갠지스강 모래언덕을 걸으시다 엄지손가락 위에 모래를 올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황하사의 수많은 모래 중 이 엄지손가락 위에 올려진 모래 수만큼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라고 말씀하셨다.”

원래는 새벽 기상 후 갠지스강에서 보트를 타고 일출을 감상하는 일정이 있었지만, 보드가야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생략하게 되었다. 새벽에 갠지스강 모래언덕에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다음 성지순례 때로 기회를 미루기로 했다.

갠지스강 순례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리카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일행 중 한 분이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오토바이로 끄는 오토리카로 이동하자고 가이드에게 말하였으나, “우리가 타 주어야 리카를 끄는 사람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이드는 팀으로 1인당 1달러를 주면 된다고 하였지만, 같은 리카를 탄 보현 전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체적인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해서서 함께 팀을 조금 더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스승님 도와 열심히 정진하고 교화에 힘쓰겠습니다”

관성사 신정회 임원진 구성, 신임 회장에 이타심 보살



왼쪽부터 박준희 부회장, 이타심 회장, 전주면 총무와 관성사 외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원에서 거리로 치자면 꽤 먼 먼 목동에서 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신심으로 시절 인연을 향해 달려 온 전주면 보살은 처음으로 총무를 맡았다.

총무가 소통의 중심이 되던 전 보살의 진화력은 종단의 주요 불사나 마니합창단 등의 활동에서 믿음을 준다.

“사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회장님, 부회장님과 자주 연락하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회의를 열어 신정회 회원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사원 교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에요. 앞으로 관성사를 기대해 주세요.”

관성사는 총지종 사원 중 유일하게 서울 사대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곳의 위치는 서울의 중심부였고,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여기에 더하여 관성사 신정회의 활약으로 ‘교화 발전의 중심’이라는 이정표도 새롭게 각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관성사=박재원 기자

관성사 교화 발전의 중심이 될 신정회 회장에 신일생 교도가 새롭게 선임됐다. 또 부회장에 박준희, 총무에 전주면 교도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 49일 상반기 불공 안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진을 만났다.

가끔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서로 나이를 합해 100살이 넘는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어디 나이를 들이밀 수 있을까. 신심의 척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관성사 신정회 임원진의 수행 나이만 도합 100살이 넘는다.

신일생 회장은 불명이 이타심이다. 이타심은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나오며,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이의 행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

“불공은 할수록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각해요.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불공으로 선한 인연이 맺어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줘요. 이렇게 좋은 불공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로자나법계공 안에서 많은 사람이 더욱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스승님을 도와 열심히 정진하고 교화에 힘쓰보겠습니다.”

부회장에 다시 선임된 박준희 보살은 자성일 범회 공양 준비부터 사원의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으로 정성으로 다하는 교도로 정평이 나 있다. 도량에 첫발을 내디딘 때부터 한결 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관성사를 지켜왔다.

“관성사는 아파트 가운데 있어서 교화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사원을 활용해 차를 마시는 공간을 내준다든지, 육아맘들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커피를 제공하는 등 사원을 홍보할 수 있는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㉑			㉒		㉓			②㉔	
					⑥				
③		㉕		④	㉖			⑤	㉗
		⑥							
				⑦		㉘			
⑧㉙		㉚				⑨	㉛		
			⑩			㉜			
⑪		㉝			⑫				㉞
			⑬						
						⑭			

- 가로 열쇠
①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 해산 등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특별 재판소.
② 우리나라 전통 과거의 하나로 풀이나 설탕물에 반죽한 밀가루를 납작하고 네모지게 만들어 튀긴 다음 물을 넣어 만든다.
③ 어떤 제도나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일을 행하는 날.
④ 총지종에서 불교성지를 답사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
⑤ 이김과 짐.
⑥ 죽은 사람의 장사를 지내는 일.
⑦ 황해도 장연군의 남쪽 끝에 위치하여 황해로 쏙 내민 뾰족한 땅.
⑧ 「반야심경」 경구 중 앞뒤가 뒤바뀐 꿈같은 생각을 하는 것.
⑨ 깨끗하고 시원하며 맛이 좋은 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⑩ 결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적절한 방법.
⑪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⑫ 소갈비 토막을 푹 고아 맑은 장을 낸 국.
⑬ 놀이에서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
⑭ 하루의 장사에서 또는 장사를 시작하여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 세로 열쇠
① 절에 눈을 바친 사람.
② 재화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 불을 끄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③ 우리나라 식용 재료, 찌거나 찌개를 끓이거나 계장을 담가 먹는다.
④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여 이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한바탕 꿈을 꿀 때처럼 흔적도 없는 불밤의 꿈.
⑥ 늙지 않고 오래 살.
⑦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⑧ ○○ 꼬치에서 ○○ 뽑아 먹듯.
⑨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⑩ 몸을 다쳐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아픔을 받은 자칭.
⑪ 직류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고 축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⑫ 심술을 잘 부리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⑬ 불교의 경전을 경, 율, 논으로 나눈 가운데 논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⑭ 못나고 하는 짓이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불교서적 월간베스트(2/1~28)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출판사 저자
1 요가디피카-육체의 한계를 넘어 선요가 아행가/현천 역
2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출판사 교육원 편찬위
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보물창고 일연
4 무비 스님 신금강경 강의 불광출판사 무비 스님
5 니까야강독1-출가자의 길 초기불전연구원 각락,대림 스님 율김
6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 오색필통 이철현 역음
7 불멸3-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지혜의눈 이각

고맙습니다
서울 관성사 김병석 교도
지난호 후원명단에 누락된 점 사과드리며, 언제나 보내주시는 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진주 화음사
권덕근(강미정 교도 아들) 공무원 시험
황상희(이순복 교도 외손자) 서울대학교
부산 정각사
김지현(윤민숙 교도 딸) 202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합격
노현제(김귀인 교도 손자) 연세대학교 연두우드레대학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이의찬 (박봉순 교도 손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강은 (정인숙 교도 외손녀) 경희대학교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대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인 옴홍야호사로서 국대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통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허구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경3길 20-1 (구경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율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담갑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말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곡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회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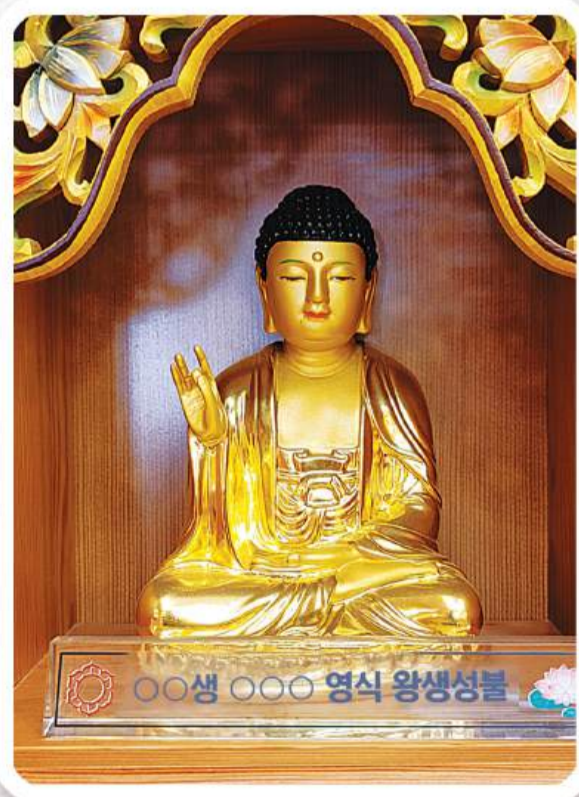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

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각사 득락전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부처님과 좌우 협시 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영식(영가) 원불

조상영식, 조부모, 부모 등 영식(영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복과 왕생성불을 개인 원불에 모셔 기원합니다.

영구불 1기당 100만원(부부에 한해서 한 불상에 모실 수 있음)

기제사 불공

설, 추석, 기제일 등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처님께 추선 불공을 드립니다.

소원·축원불

불상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과 소원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축원불 1기당 10만원/1년)



불교총지종 정각사

상담문의. 051-552-7901 /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정각사)